

A COMPANION
VOLUME

No. 0

Stacktube

how to read, not how to operate



issue zero,
read me first

스택튜브를 읽는 법

영상은 흘러가지만, 지식은 쌓여야 합니다.

COMPANION

1.0

2026 · 06

A COMPANION VOLUME · No. 0

스택튜브를 읽는 법

영상은 흘러가지만, 지식은 쌓여야 합니다.

COMPANION

1.0

2026 · 06

stacktube.io · unstackd.io

차례

프롤로그 — 북마크 300개, 다시 연 건 2개	4
1장 — 첫 번째 노트가 도착하는 날	6
2장 — 흐름을 자동으로 맡기기	9
3장 — 노트가 사는 곳을 정하기	11
4장 — 쌓임이 보이기 시작할 때	14
5장 — 잊을 만하면 다시 만난다	17
6장 — 한 달의 끝, 한 권의 책	19
부록 — 레퍼런스	21
에필로그 — 만든 사람의 노트	25

프롤로그 — 북마크 300개, 다시 연 건 2개

어느 날 세어 봤습니다. 유튜브 '나중에 볼 동영상'에 312개. 브라우저 북마크 폴더에 수십 개. 메모 앱에 붙여 둔 링크가 또 한 묶음. 전부 "이건 꼭 봐야지" 하고 저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다시 연 건 2개였습니다.

저장하는 순간에는 분명히 배우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좋은 강의를 발견했고, 좋은 분석을 발견했고, 그걸 잃어버리지 않게 어딘가에 넣어 뒀으니까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보니 남은 건 목록이지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영상은 책과 다르게 책장에 꽂히지 않습니다. 흘러갑니다. 절반쯤 기억나는 제목과 "그거 어디서 봤는데"라는 문장만 남기고요.

Stacktube 는 그 312개에서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더 많이 보게 해 주는 도구가 아니라, 본 것이 쌓이게 해 주는 도구. 채널을 지켜보고, 새 영상을 분석해 구조화된 노트로 만들고, 그 노트를 당신이 정한 곳 — 이메일, Obsidian, Drive, Kindle — 으로 보내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그 노트들이 한 권의 책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 책은 매뉴얼이 아닙니다. 버튼의 위치는 화면이 더 잘 알려 줍니다. 대신 이 책에는 버튼 뒤에 있는 것들을 적었습니다 — 왜 타임라인이 왼쪽에 있는지, 왜 무료 플랜의 자동 분석이 주 1회인지, 왜 월간 합본에는 광고도 요약도 없는지. 도구는 만든 사람의 결정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결정을 알고 쓰는 도구는 더 오래갑니다.

월간 무크지 시리즈의 별권, 0호입니다. 매달 1일에 도착하는 본권과 같은 옷을 입혔습니다. 15분이면 다 읽습니다. 그 15분이, 312개의 목록을 다시 만들지 않게 해 줄 겁니다.

— unstackd.io

1장 — 첫 번째 노트가 도착하는 날

Starter

채널 하나를 등록하고 다음 날 아침, 메일함에 노트 한 장이 도착해 있습니다. 어젯밤 그 채널에 올라온 38분짜리 영상입니다. 당신은 아직 그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트를 2분쯤 훑고 나니, 이 영상에서 무엇을 주장하는지, 근거가 무엇인지, 어느 구간이 핵심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Stacktube 의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 순간을 반복 가능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영상으로 배우는 일의 마찰은 단순합니다. 38분짜리 영상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건 대개 6분어치인데, 그 6분이 어디 있는지는 38분을 다 봐야 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배속을 올리고, 타임라인을 꺾고, 댓글에서 "3:42 핵심"을 찾습니다. 그렇게 봐도 일주일 뒤에 남는 건 "봤다"는 기억뿐입니다. 메모를 했다면 사정이 낫지만, 그 메모는 영상과 분리된 채 메모 앱 어딘가에서 다시 흘러갑니다.

그래서 노트의 구조를 정할 때 몇 가지를 일부러 결정했습니다.

타임라인을 왼쪽에 둔 이유. 노트를 열면 챕터 목차가 좌측에 고정되어 따라 옵니다. 문서 도구들 — Notion, Linear — 이 다듬어 온 자리이고, 눈이 "지금 어디를 읽고 있는지"를 잃지 않는 자리입니다. 영상 플레이어의 진행바를 훑내내는 대신, 읽는 물건의 문법을 따랐습니다. 노트는 영상의 축소판이 아니라 독립된 읽을거리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에서는 햄버거 버튼 뒤로 접힙니다.)

영상마다 다른 틀을 쓰는 이유. 모든 영상을 같은 틀에 부으면 요약기가 됩니다. 튜토리얼, 뉴스, 프레임워크, 인터뷰, 회고·에세이 — Stacktube 는 영상의 유형을 먼저 판별하고, 유형에 맞는 구조로 노트를 짭니다. 튜토리얼이라면 단계가, 인터뷰라면 발언과 맥락이, 강의라면 개념의 정의와 예시가 뼈대가 됩니다.

형광펜을 아껴 쓰는 이유. AI 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문장에는 형광펜이 칠해져 있습니다. 단, 절제해서요. 전부 칠해진 페이지는 아무것도 칠해지지 않은 페이지와 같으니까요.

시작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채널을 등록하거나(대시보드 → 채널, youtube.com/@채널명 형식의 URL 을 그대로 붙여넣기), 영상 하나를 직접 분석하거나(URL 붙여넣기 → 분석). 자막이 있는 60분 이하 영상이면 됩니다. 같은 영상은 두 번 처리되지 않습니다 — video ID 기준으로 한 번만.

노트가 도착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① 좌측 타임라인으로 전체 뼈대를 10초 안에 봅니다. ② 형광펜 문장만 따라 한 번 내려갑니다 — 이게 2분짜리 독해입니다. ③ 더 깊이 갈 구간이 있으면 본문의 타임스탬프를 누릅니다. 유튜브의 정확히 그 장면으로 점프합니다. 영상은 이때부터 보는 겁니다 — 전부가 아니라, 노트가 가리킨 그 구간만.

✓ **의식 하나.** 노트가 도착하면 영상보다 노트를 먼저 여세요. 영상은 노트가 "여기는 직접 볼 가치가 있다"고 가리킬 때만.



그림 1 · 노트의 구조 — 타임라인은 왼쪽에, 할광펜은 아껴서, 타임스탬프는 그 장면으로.

2장 — 흐름을 자동으로 맡기기

Starter / Pro

좋아하는 채널이 영상을 올렸다는 사실을, 2주 뒤에 알게 된 적이 있을 겁니다. 알고리즘이 보여 주지 않았고, 알림은 켜 둔 지 오래지만 너무 많이 와서 보지 않게 됐고. 정작 챙겨 보고 싶은 채널일수록 업로드가 뜸해서 흐름에서 사라집니다.

구독과 알림은 "놓치지 않기"의 도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당장 보기"를 요구하는 도구입니다. 알림을 누르는 순간 시간이 그 자리에서 빠져나갑니다. 누르지 않으면 영상은 피드 아래로 흘러가고요. 보거나, 읽거나 — 두 선택지밖에 없는 구조가 마찰의 정체입니다.

Stacktube의 모니터링은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채널을 등록해 두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분석이 자동으로 돌고 노트가 쌓입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보지 않아도, 읽는 것은 없습니다.

Starter의 자동 분석을 주 1회로 묶은 이유. 정직하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원가입니다. 영상 한 편의 분석에는 실제 AI 비용이 들고, 무료 플랜에서 모든 채널을 매일 돌리면 서비스가 오래갈 수 없습니다. 무리한 무료 정책으로 1년 뒤에 사라지는 도구보다, 지속 가능한 경계를 처음부터 굵는 쪽을 택했습니다. 둘째는 리듬입니다. 매일 도착하는 노트는 무료 사용자에게 또 하나의 알림 소음이 되기 쉽습니다. 주 1회, 한 통의 주간 다이제스트로 묶이면 "이번 주에 이 채널에서 나온 것"을 한 호흡에 읽게 됩니다. 제약으로 시작한 설계가 결과적으로 더 나은 읽기 경험이 된 경우라, 지금도 이 결정을 좋아합니다.

Pro 부터는 매일로 좁혀집니다. 채널 수가 늘고(7개) 월 분석량이 늘면(50회), 하루 단위의 흐름이 의미를 갖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채널 등록은 1장과 같습니다 — URL 붙여넣기. 등록된 채널은 플랜에 따라 자동으로 모니터링됩니다. Starter는 채널 1개 · 주 1회, Pro와 Max는 등록 채널 전체 · 매일. 새 노트는 다이제스트 이메일로 묶여 도착하고, 대시보드에는 즉시 쌓입니다. 월 분석 한도(Starter 10회 / Pro 50회 / Max 150회)는 분석이 실제로 실행된 경우에만 차감됩니다 — 자막 없음으로 건너뛴 영상은 세지 않습니다.

다이제스트를 읽는 요령도 하나 있습니다. 전부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목과 유형 chip만 먼저 훑고, 이번 주의 한 편만 고르세요. 그 한 편의 노트를 끝까지 읽는 쪽이, 다섯 편을 반쯤 훑는 것보다 더 많이 남습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Library에 쌓여 있고, 4장에서 보겠지만 쌓인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 **의식 하나.** 다이제스트가 도착하는 날, 5분만 정해 두세요. 그 5분이 "전부 봐야 한다"는 부채감을 "고르면 된다"는 선택권으로 바꿔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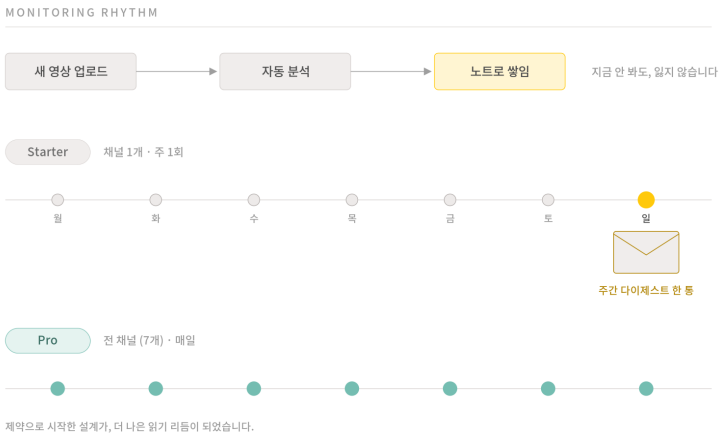


그림 2 · 두 개의 리듬 — Starter는 일주일에 한 통, Pro는 매일의 흐름.



3장 — 노트가 사는 곳을 정하기

Pro+ 중심

Obsidian 을 쓰는 분이라면 이 장면일 겁니다. 아침에 vault 를 열었는데, 어제 본 적 없는 노트가 폴더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젯밤 구독 채널에 올라온 영상의 노트입니다. frontmatter 가 정리되어 있고, 태그가 붙어 있고, 그래프 뷰에 새 점 하나가 떠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식 도구들의 오래된 거짓말이 있습니다 — "당신의 지식을 우리 앱에 모으세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앱이 유료화되면? 서비스가 접히면? 10년 뒤에도 그 앱이 있을까요? 좋은 노트가 특정 서비스 안에만 산다면, 그 노트의 수명은 서비스의 수명과 같아집니다. 저장이 아니라 인질입니다.

그래서 Stacktube 는 반대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노트가 사는 곳은 당신이 정합니다. 웹 대시보드는 다섯 개의 목적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 이메일, Google Drive, Dropbox, Kindle, 그리고 Obsid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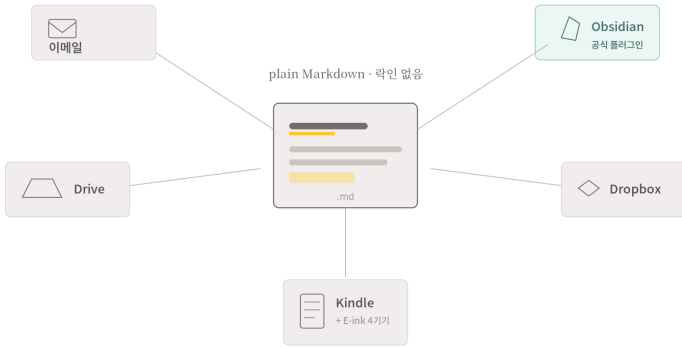
Obsidian 연동은 공식 커뮤니티 플러그인(디렉토리에서 "StackTube" 검색)으로 합니다. 설계 원칙은 하나였습니다 — **락인 없음**. 노트는 YAML frontmatter 가 붙은 평범한 `.md` 파일로 당신이 고른 폴더에 쓰입니다. 플러그인을 지워도, 심지어 Stacktube 를 떠나도, 파일은 전부 그 자리에 읽을 수 있는 채로 남습니다. video ID 기준으로 중복 없이 쓰이고, 동기화는 끊긴 지점부터 다시 이어집니다. 분석은 전부 서버에서 끝나기 때문에 플러그인은 가볍게, 가져오고 쓰는 일만 합니다.

E-ink 기기를 위한 결정도 있습니다. 화면으로 읽는 것과 전자잉크로 읽는 것은 다른 행위라서요. Kindle 은 Send-to-Kindle 로 PDF 가 자동 전송되고, Boox 와 Supernote 는 기기의 Drive/Dropbox 동기화로 자동 수신됩니다. reMarkable 은 공식 수신 API 가 없어 자동 전송은 불가하지만, 설정 페이지에 세 가지 우회 경로를 안내해 두었습니다.

모든 연동은 **설정** → **연동** 에서 시작합니다 (Starter 는 웹·이메일, 나머지 목적지는 Pro 부터 — 7일 Pro 체험 중에는 전부 열립니다). Obsidian 은 플러그인 설치 → 설정에서 API 키 발급 → 플러그인에 붙여넣기, 세 단계면 끝납니다. Drive/Dropbox 는 버튼 한 번의 OAuth 연결. Kindle 은 Send-to-Kindle 주소 등록. 단계별 상세는 부록 D 에 모아 두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 Obsidian 으로 보내는 경로는 플러그인과 클라우드 폴더 경유 중 하나만 쓰세요. 둘 다 켜면 같은 노트가 두 번 들어갑니다.

✓ **의식 하나.** 노트의 "본진"을 한 곳만 정하세요. 두 곳에 쌓이는 지식은 결국 어느 쪽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서비스를 떠나도, 파일은 전부 그 자리에 남습니다.

그림 3 · 노트가 사는 다섯 곳 — 어디로 보낼지는 당신이 정합니다.

4장 — 쌓임이 보이기 시작할 때

Pro+

6주쯤 지난 어느 날, Library 를 엽니다. 노트가 마흔 장쯤 쌓여 있습니다. Cluster 탭을 누르자 노트들이 주제별 덩어리로 다시 배열되는데 — 거기에 계획에 없던 묶음이 하나 보입니다. 협상에 대한 노트가 일곱 장. 당신은 협상을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6주의 당신은 분명히 그 쪽으로 끌리고 있었습니다.

쌓인 것은 보여 주는 것과 다릅니다. 이 장은 "보여 주는 장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트 40장이 그냥 시간순 목록이라면, 그건 지식이 아니라 잘 정리된 보관함입니다. 보관함의 문제는 검색할 줄 아는 것만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뭘 모았는지"는 검색으로 알 수 없습니다 — 그건 구조가 보여 줘야 합니다.

Library 에 탭을 세 개 둔 이유. 같은 노트 더미를 세 가지 시선으로 봅니다. Timeline 은 시간 — 언제 무엇에 끌렸는지의 기록. Cluster 는 주제 — 노트들이 스스로 모여 만드는 지도. Stack 은 축적 — 어디가 두껍게 쌓이고 있는지. 하나의 정렬로는 셋 중 무엇도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화면을 늘리는 대신 시선을 늘렸습니다.

Topic 합성을 주 1회로 둔 이유. Pro 부터, 일주일치 노트를 주제 단위로 다시 읽고 묶는 합성이 주 1회 돌아갑니다. 매일 돌리지 않는 건 비용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제라는 게 하루 단위로 바뀌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은 "흐름"이 "주제"로 굳는 최소 단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인덱스를 당신의 공간에도 두는 이유. 쌓임이 Stacktube 안에서만 보이면 3장의 원칙(락인 없음)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Drive 사용자에게는

`_Stacktube_INDEX` 문서가, Obsidian 사용자에게는 `00_Knowledge_Hub.md` 라는 Master MOC 파일이 주기적으로 갱신됩니다. 당신의 폴더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인덱스는 항상 한 파일로만 — 늘어나는 건 내용이지 파일이 아닙니다.

Library 는 사이드바에서 엽니다. 처음엔 Timeline 으로 흐름을, 한 달에 한 번은 Cluster 로 지도를 보세요. 노트가 적을 때(20장 이하) Cluster 는 심심합니다 — 정상입니다. 쌓일수록 좋아지는 화면이라, 이 화면의 진가는 두 달째부터 나옵니다. Drive 연동을 켜다면 `Stacktube/index/` 폴더의 `_Stacktube_INDEX` 가 매주 갱신되고, Obsidian 이라면 vault 의 `00_Knowledge_Hub.md` 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 **의식 하나.** 한 달에 한 번 Cluster 탭을 여세요. 찾으러 가지 말고, 발견되러 가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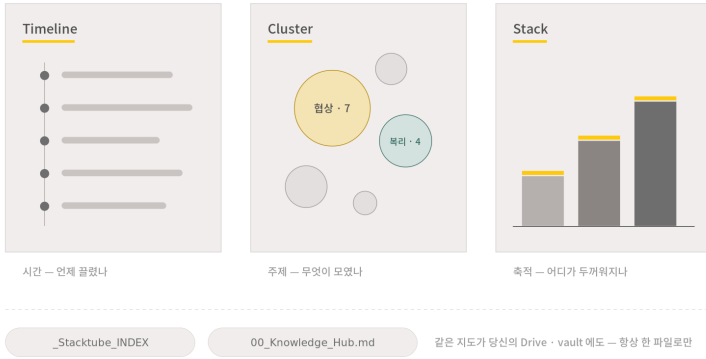


그림 4 · 같은 노트, 세 개의 시선 — 그리고 당신의 공간에 놓이는 인덱스 한 파일.

5장 — 잊을 만하면 다시 만난다

전 플랜 (Resurface 는 Pro 부터)

여느 날의 다이제스트를 내리다가, 끝에서 낯선 카드를 만납니다. "90일 전, 당신은 이 노트를 읽었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던 제목입니다. 그런데 카드를 여는 순간 — 아, 이거. 그때 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이 지금 하는 일과 정확히 닿아 있습니다.

저장의 환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장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가졌다"고 느끼지만, 다시 만나지 않는 지식은 가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은 다시 만나러 스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 새것이 늘 더 반짝이니까요. 보관함이 커질 수록 옛 노트가 다시 읽힐 확률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Resurface 의 간격을 21 / 90 / 180 / 365일로 둔 이유. 노트가 그 나이가 될 때마다 한 번씩 당신 앞에 다시 옵니다. 3주는 "최근이라 기억나는 것"과 "벌써 흐릿한 것"이 갈리는 지점이고, 90일·180일·1년은 같은 노트가 다른 의미로 읽히기에 충분한 거리입니다. 1년 전의 노트가 다시 왔는데 여전히 좋다면, 그건 그때의 유행이 아니라 당신의 지식입니다.

알림이 아니라 다이제스트 카드로 보내는 이유. 재회를 위해 별도의 푸시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안 했습니다. "옛 노트 보세요"라는 알림은 사흘이면 무시되는 소음이 됩니다. 대신 어차피 열어 보는 다이제스트의 끝자리에 한 장씩 끼워 둡니다. 재회는 약속이 아니라 마주침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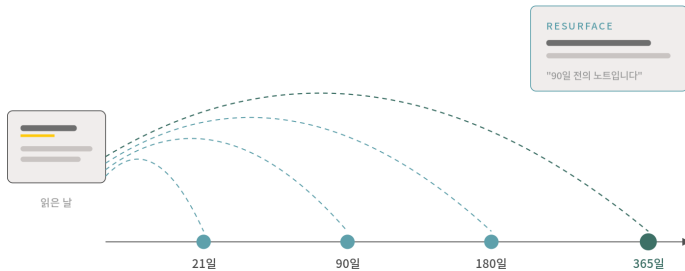
찾으러 가는 길도 물론 있습니다. 검색입니다. Pro 부터는 키워드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도 의미가 닿으면 찾아내는 Cross-video search 가 전체 노트를 가로질러 작동합니다. "그거 어디서 봤더라"의 "그거"만 기억나도 됩니다.

Resurface 는 설정할 것이 없습니다 — Pro 부터 자동으로 켜지고, 다이제스트 안에 카드로 도착합니다. 검색은 대시보드 상단에서 언제든지. 영상 제목이 아니라 내용으로 검색해 보세요 — "금리가 채권 가격에 미치는 영향" 처럼 문장으로 던져도 됩니다.

자주 던지는 질문이 생겼다면 검색을 저장해 두세요. 저장된 검색은 한 번의 클릭으로 언제든지 다시 실행됩니다 — 같은 주제를 계속 파고 있다면, 새 노트가 쌓일 때마다 같은 질문의 답이 두꺼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 **의식 하나.** 재회 카드를 만나면 10초만 멈추세요. "이거 기억하고 있었나?" — 그 한 번의 자문이 노트를 보관물에서 지식으로 바꿉니다.

RESURFACE — 21 / 90 / 180 / 365



보관이 아니라, 재회.

알림이 아니라 다이제스트의 끝자리에 — 약속이 아니라 마주침으로.

그림 5 · 재회의 간격 — 잊을 만한 때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6장 — 한 달의 끝, 한 권의 책

Max

매월 1일 아침, Kindle 라이브러리에 책이 한 권 들어와 있습니다. 표지에는 지난달의 연월이 박혀 있습니다. 목차를 열면 지난 한 달간 도착한 노트들이 주제별 챕터로 묶여 있습니다. 통근길에, 비행기에서, 인터넷 없이 — 지난 한 달의 당신이 한 권으로 읽힙니다.

월말에 "이번 달에 뭘 배웠지?"라고 자문해 보면 압니다. 분명히 매일 무언가를 봤는데 대답은 흐릿합니다. 하루 단위의 입력은 쌓이는 동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딘가에서 한 번, 묶어서 돌려줘야 합니다. 그 단위로 우리는 "한 달"을, 그 형태로 "책"을 골랐습니다.

광고도 요약도 없는 한 권을 만든 결정들. 월간 합본에는 노트의 요약본이 아니라 본문 전체가 들어갑니다. 합본의 쓸모는 훑어보기가 아니라 다시 읽기이고, 다시 읽기는 오프라인에서 끊기지 않아야 하니까요. 광고나 추천 콘텐츠 같은 것도 없습니다 — 이 책의 재료는 전부 당신이 고른 채널에서 왔고, 거기에 우리가 끼워 넣을 것은 없습니다. 포맷이 EPUB 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웹페이지는 흘러가지만 책은 기기의 책장에 꽂힙니다.

첫 호를 가입 즉시 보내는 이유. Max 에 합류하면 다음 달 1일까지 기다리게 하지 않고, 직전 달의 합본을 바로 만들어 보냅니다. 다만 지난달 분석 영상이 5편 미만이면 한 권으로 묶기엔 얇아서, 첫 호를 다음 달로 미루고 안내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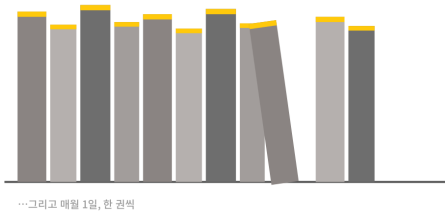
디자인을 노트와 같은 토큰으로 맞춘 이유. 형광펜, 콜아웃, 타임스탬프, 푸터의 슬로건까지 — 합본은 당신이 매일 보던 노트와 같은 옷을 입습니다. "내 노트가 책이 됐다"는 감각은 디테일의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지금 읽고 계신 이 별권도 같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Max 플랜에서 자동으로 켜집니다. 매월 1일 아침(06:00 KST 기준) 새 합본이 만들어져 이메일로, 그리고 연결해 둔 Drive · Dropbox · Kindle 로 함께 발송됩니다. 지난 호들은 대시보드의 합본 보관함(ebooks)에서 언제든지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호가 유난히 두꺼운 달에는 이메일 첨부 대신 다운로드 링크로 옵니다.

1년이 지나면 열두 권입니다. 책장에 꽂힌 열두 권의 자신 — 이 경험이 Stacktube 가 도착하려는 곳입니다.

✓ **의식 하나.** 매월 첫 주말, 목차만이라도 펼치세요. 목차는 지난 한 달의 당신이 쓴 자기소개서입니다.

A MONTHLY VOLUME — TWELVE A YEAR



1년이 지나면, 책장에 꽂힌 열두 권의 자신.



그림 6 · 책장의 1년 — 매월 1일 한 권씩, 열두 권의 자신.



부록 — 레퍼런스

A. 플랜 비교표

기준: 2026-06 (Companion 1.0). 최신 가격·한도는 stacktube.io 요
 금제 페이지가 우선합니다.

	Starter	Pro	Max
가격 (월)	무료	\$7.99	\$19.99
가격 (연간 결제 시 월)	—	\$5.99	\$14.99
등록 채널	2개	7개	15개
월 분석 한도	10회	50회	150회
자동 모니터링	주 1회 · 1 채널	매일 · 전 채널	매일 · 전 채널
노트 목적지	웹 · 이메일	+ Obsidian · Drive · Dropbox · Kindle · E-ink	좌동
Cross-video search	—	✓	✓
Library (Timeline/Cluster/ Stack)	✓	✓	✓
Resurface (21/90/180/365일)	—	✓	✓
Drive <code>_Stacktube_INDEX</code> / Obsidian Hub	—	✓	✓
월간 무크지 EPUB	—	—	✓
우선 처리 큐	—	—	✓

가입 시 7일간 Pro 기능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B. 보안, 한 페이지

당신의 노트와 키를 다루는 방식의 원칙만 추립니다.

- **격리.** 모든 데이터는 사용자 단위로 격리됩니다(데이터베이스 Row Level Security). 다른 사용자의 노트에 닿는 경로는 없습니다.
- **암호화.** 연동에 쓰이는 OAuth 토큰과 API 키는 AES-256-GCM 으로 암호화되어 저장됩니다. 키를 평문으로 두지 않고, 로그에 남기지 않습니다.
- **인증과 한도.** 모든 API 요청은 첫 줄에서 인증을 검증하고, 과도한 요청은 rate limit 으로 차단됩니다.
- **결제.** 결제는 Paddle(Merchant of Record)이 처리합니다. 카드 정보는 Stacktube 서버를 거치지 않으며, 결제 webhook 은 서명 검증을 통과해야만 반영됩니다.
- **에러.** 오류 응답은 내부 정보를 제거한 뒤에만 바깥으로 나갑니다.

Obsidian 플러그인용 API 키는 발급 시점 이후 서버에 SHA-256 해시로만 보관되어, 유출되어도 원문을 복원할 수 없습니다. 키는 설정에서 언제든지 폐기하고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C. FAQ Top 10

1. 채널 URL 은 어떤 형식으로 넣어야 하나요? `youtube.com/@채널명`, `/channel/ID`, `/c/채널명` 모두 지원됩니다. 채널 페이지 URL 을 그대로 붙여 넣으면 됩니다.

2. Starter 의 자동 모니터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채널 1개를 주 1회 자동 분석해 주간 다이제스트로 보내드립니다. 매일 + 전 채널 자동 모니터링 은 Pro 부터입니다.

3. 무료로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Starter(무료)로 월 10편까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면 7일간 Pro 기능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4. 분석이 실패했는데 왜 그런가요? 자막이 없는 영상이거나 AI API 의 일시적 오류일 수 있습니다. 재시도 후에도 반복되면 도움말 페이지에서 버그 신고를 보내주세요.

5. 같은 영상을 두 번 처리하나요? 아니요. video ID 기준으로 중복을 방지하므로 같은 영상은 한 번만 처리됩니다.

6. 영상 길이 제한이 있나요? 60분 이하 영상만 분석됩니다. 그보다 긴 영상은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7. Pro 에서 뭐가 달라지나요? 매일 자동 모니터링, 월 50회 분석, 전체 출력(이메일 · Obsidian · Drive · Dropbox · E-ink · Kindle), Cross-video 지식 검색이 열립니다.

8. Obsidian 연동은 어떻게 하나요? 공식 커뮤니티 플러그인(StackTube)을 설치하고, 설정 → Obsidian 에서 API 키를 발급해 플러그인에 붙여넣으면 vault 로 자동 동기화됩니다. Pro 부터 사용할 수 있고, 7일 Pro 체험 중에도 열립니다. 클라우드 폴더 경유 방식과는 하나만 선택하세요.

9. E-ink 태블릿에서 볼 수 있나요? Kindle · reMarkable · Boox · Supernote 를 지원합니다. Kindle 은 Send-to-Kindle 로 자동 전송, Boox · Supernote 는 기기의 Drive/Dropbox 동기화로 수신합니다. reMarkable 은 자동 전송 API 가 없어 설정 페이지에서 3가지 방법을 안내합니다.

10. 환불은 어떻게 하나요? 구독 관리 페이지에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studio@unstackd.io 로 연락해 주세요.

D. 연동별 3단계 설정

Obsidian (공식 플러그인) 1. Obsidian → 설정 → 커뮤니티 플러그인 → "StackTube" 검색 → 설치·활성화 2. Stacktube 설정 → Obsidian 탭에서 API 키 발급 3. 플러그인 설정에 키 붙여넣기 → 동기화 폴더 지정 → Sync

Google Drive 1. 설정 → 연동 → Google Drive "연결" 2. Google 계정 승인 (OAuth) 3. 끝 — 새 노트가 `Stacktube/` 폴더에 자동 저장됩니다

Dropbox 1. 설정 → 연동 → Dropbox "연결" 2. Dropbox 계정 승인 (OAuth) 3. 끝 — 새 노트가 `Stacktube/` 폴더에 자동 저장됩니다

Kindle 1. Amazon 의 Send-to-Kindle 설정에서 승인 발신자에 Stacktube 발신 주소 추가 2. Stacktube 설정 → 연동에 내 Send-to-Kindle 주소(@kindle.com) 입력 3. 끝 — 새 노트가 PDF 로 Kindle 라이브러리에 도착합니다

Boox · Supernote (E-ink) 1. 위의 Drive 또는 Dropbox 연동을 먼저 겁니다 2. 기기에서 같은 Drive/Dropbox 계정으로 동기화 설정 3. 끝 — 기기가 폴더를 자동 수신합니다

reMarkable 1. 설정 → 연동의 reMarkable 가이드 카드를 엽니다 2. 세 가지 방법(Connect 구독자의 Drive/Dropbox 미러링 · Read on reMarkable 확장 · 수동 업로드) 중 하나를 고릅니다 3. 안내대로 1회 설정하면 이후는 같은 흐름으로 반복됩니다

에필로그 — 만든 사람의 노트

Stacktube 는 1인 메이커가 만들고 있습니다. 기획도, 코드도, 이 책의 문장도요.

1년 가까이 만드는 과정을 공개해 왔습니다. 분석 파이프라인이 무너진 날의 기록도, Obsidian 커뮤니티 플러그인이 디렉토리에 등재된 날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혼자 만드는 서비스의 약점은 분명합니다 — 느립니다. 대신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모든 결정에는 결정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직접 닿을 수 있다는 것. 도움말 페이지의 피드백은 전부 제가 읽습니다.

이 책에 적은 결정들은 2026년 6월의 것입니다. 서비스는 계속 바뀔 것이고, 어떤 결정은 틀린 것으로 판명나 뒤집힐 겁니다. 그때는 이 책도 개정판으로 다시 만들겠습니다. 표지의 버전 숫자가 그 약속입니다.

영상은 흘러가지만, 지식은 쌓여야 합니다. 당신의 책장이 두꺼워지길 바랍니다.

— unstackd.io

콜로폰

스택튜브를 읽는 법 — The Stacktube Companion Companion · 1.0 · 2026-06 (초판)

월간 무크지 시리즈의 별권(0호)으로, 본권과 같은 디자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표지는 월간호 시안의 별권 컬러 변주, 본문은 노트와 같은 형광펜 · 콜아웃 · 타임스탬프 · 챕터 디바이더 토큰을 씁니다. 원고는 Markdown 으로 쓰여 EPUB 과 PDF 로 빌드되었습니다.

기능이 의미 있게 바뀌면 개정판(1.1, 1.2 …)을 changelog 와 함께 발행
합니다. 이 판의 내용과 실제 서비스가 다르다면, 서비스 쪽이 더 새것입니다.

stacktube.io · unstackd.io

Videos stream by. Knowledge should stack up.

Companion · 1.0 · 2026-06

영상은 흘러가지만, 지식은 쌓여야 합니다.